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표수영	학번	APPROVED
이메일	justpyo@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국가) USA
기 간	2018.1~2018.12	[귀국일: 2018년 12월 2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월 20일

신 청 인 : 표수영 *Saeyoung Pyo*

1.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선배님들의 귀국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콜로라도 덴버는 맑은 공기와 거의 일년 내내 드넓고 파란 하늘과 그림 같은 구름을 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발고도가 높아서 처음에 좀 숨이 차실 수 있는데 곧 적응이 됩니다. 초기에 고산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 기수 선배님이 미국 도착하자마자 물과 바나나를 주며 이게 고산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다행히 저희 가족은 시차적응 때문에 잠깐 고생한 것 말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강렬하니 평소에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눈이나 비가 와도 오후쯤 되면 다 말라서 차량 이동에 불편한 적은 없었는데, 간혹 눈이 계속 내릴경우 매우 미끄러우니, 그날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건조하기 때문에, 집에 가습기는 필수이며, 보습되는 바디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초기에는 국제 면허증, 여권,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다녔는데, 콜로라도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없이 일정시간 경과하면 한국의 면허증으로 DMV에서 미국의 면허증으로 발급해주니 편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RTD Pass(경전철, 수업료에 포함되어있음)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학교 다닐때는 동기들과 이걸 자주 이용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Centennial에 거주했는데, 전 기수 선배님들과 다른 공공기관 분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선택하여 마트, 아울렛, 극장, 공원, 수영장 등 생활면에선 매우 풍족했고, 아이 학교(헤리티지 유치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차량과 집기류의 경우, 전 기수 선배님께 저렴하게 물려받아 잘 사용했고, 지금은 새로 오시는 후배님께 양도하였습니다. 이곳에 오기전, 온 후에도 선배님들이 조언을 많이 주셔서 초기 생활 적응에 문제는 없었으며 매우 편안했습니다.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KDI에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콜로라도 덴버 대학원 수업에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학이다보니 수업 받는 학생이 현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데, 인터넷서널 학생이 많아서 배려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교수님도 대부분 매우 친절하셔서 학점도 후하게 잘 주십니다. 교내에서 수업듣는것도 좋았지만, Urban Socil Problems 같은 수업을 통해 교도소, 저소득층 케어센터, 마약중독 치료소 등을 방문하며 체험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3.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저의 경우, 학생회 활동을 하며 미리 여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덴버를 일찍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수 선배님들과 사전에 연락을 했고 Core 과목에서 Waiver를 받을수 있는 수업을 KDI에서 먼저 수강했습니다(AMPP, IRM, Policy Process Analysis). 덕분에 제가 듣고 싶은 선택과목을 코어과목보다 부담없이 들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행정대학원은 특이하게 정식학기전 1월에 Intensive 코스로 3주정도에 3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서 저는 봄학기에 6과목 수강, 여름학기 1과목 수강(온라인), 가을학기 캡스톤 1과목을 수강하여 여유있게 생활하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수강한 과목들입니다.

No.	Course Title	Institution (해당대학)		
		Credit	Type	Term

1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3.0	Core	SPRING
2	Amercn Pub Service Environment	3.0	Elective	SPRING
3	Political Advocacy	3.0	Elective	SPRING
4	Urban Social Problems	3.0	Elective	SPRING
5	Intro Public Admin-Public Srvc	3.0	Core	SPRING
6	Public Service Leadership	3.0	Core	SPRING
7	Organiztnl Mgmt and Behavior	3.0	Core	SUMMER
8	Capstone Seminar	3.0	Core	FALL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콜로라도 덴버 대학원은 도심지의 캠퍼스를 여러 학교가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과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출퇴근식 학교라고 해야할까요? 기숙사 운영이 가을학기부터 1년 단위로 이루어 지고, 같이 가는 가족의 생활환경이 중요했기에 전 기수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저는 학교와는 좀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1베드 아파트 렌트비가 1300불정도로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좀 비싼 편이었는데, 아파트 내에 수영장과 작은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로 가는 것이 가깝지만, 주차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 RTD Pass를 사용하여 경전철을 주로 이용했는데, 꼭 학교갈때만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시내구경을 하거나 잠깐 불일을 보러 나갈때도 사용하여 편리했습니다. 음식의 경우, 여러 선배님들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인 마트들이 있고 한국식당(중국집, 국밥집, 치킨집, 고기집 등), 베트남 쌀국수 집 등이 있어서 종종 이용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경우, 15~20%정도 팁을 주는데 점심의 경우 15%, 저녁의 경우 18 or 20%의 팁을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소고기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주로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멀리 나가지 않아도 로키산이 보이고 자연경관이 좋아서 이따금씩 공원 같은곳에서 다른 가족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콜로라도 덴버에는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가입이 무료이고, 별도의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학기중에 이용했습니다. 과제물 제출하기전 문법적 오류, 발표하기전 구어체 표현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동네마다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어서, 한국으로 치면 시설공단 같은 곳에서 매우 저렴하게 아이 수영 등을 배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기차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이 많은데 각 홈페이지 별로 무료로 개방하는 날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저의 경우, 토플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 KDI대학원에 입학하여 초기에 고생을 좀 했었는데, KDI 대학원의 여러 교수님들이 격려해주셔서 무사히 원하는 덴버 행정대학원에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성적 우수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듣기, 말하기 등 영어는 잘 안되지만 덴버 교수님들도 매우 친절하시고 열린 자세로 학생을 맞이해주시니 학업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중서부 지방이다 보니, 동부 서부로 여행을 가기도 좋았고, 스키 등 액티비티 천국답게 인근에도 여행할 곳이 많아 가족들에게는 정말 축복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학업 이외에도, 여행, 문화생활, 자녀교육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 없이 즐겁게 지냈습니다.

7.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 생활에 대한 정보

방학 등 시간이 있을 경우, 캐나다, 멕시코, 유럽 등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고 I20를 제출하면 뒷면에 싸인을 해주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재입국시 반드시 필요하니 가급적 일찍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8.후배들에게 하고 싶은말

가시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가급적 미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교마다 Core 과목과 KDI 수업을 Waiver해주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KDI 수업을 듣는 것이 현지에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지방 순회근무를 하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 기회에 가족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만회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학교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여행중에 투닥거리기도 했고 앞으로 가족에게 더 잘하는게 중요하지만 이곳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전호용	학번	
휴대전화	01026443174	이메일	phjhy@hanmail.net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SPA (국가) USA
기 간	2017.12~2018.12 [귀국일: 2018년12월2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 월 일

신 청 인 : 전 호 용 (인)

1. GMP 2 년차 대학의 초기 생활 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는 콜로라도 주의 주도이며, 해발고도가 높아(대략 1 마일) Mile-High City 라고도 불립니다. 처음 입국하면 약간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매우 건조하고 햇빛이 따가운 편으로, 실내에는 가습기가 필요하고 외출할 때에는 썬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더라도 햇빛이 드는 날이 많아 곧 눈이 녹아 내리기에 자동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날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Rocky 산이 있고 경관이 매우 좋은 곳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이 많으므로 여가시간에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여건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Centennial 지역은 아이들 학군이 매우 좋은 지역으로 (Cherry Creek 학군), 첫째 아이가 다닌 West Middle School, 둘째가 다닌 Heritage Elementary School 은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학생들도 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는 편으로,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덴버에는 Aurora 지역에 한인 마트가 있고, 한국음식점, 미장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 지내는 것과 비교해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덴버로 온다면, 한국에서 특히 어떤 것을 준비해오지 않더라도 미국생활에 불편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국심사 및 짐 찾기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덴버로 가는 비행기는 일본경유하여 덴버에 바로 도착하는 United Airline 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덴버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덴버에서 LA, 샌프란시스코 등을 경유하여 한국국적기를 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2. GMP 2 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KDI 에서 수강한 과목 중 3 개 과목을 waiver 를 받을 수 있으며, 미리 UC Denver 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Syllabus 를 보내면 waiver 가능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대학원 수업은 과목의 성격과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토론과 발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의 진행은 미국 학생들 위주로 외국인 학생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되지만, 평가 시에는 교수님들도 유학생 임을 감안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크게 학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KDI 에서 수업을 충실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면 미국 대학원에서의 수업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사 운영과 관련, UC 덴버에는 겨울 Intensive 과정, 5 월 계절학기, 여름 계절학기 등이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수강신청을 하면, 가을에는 캡스톤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스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 과정은 모두 마쳐야 하기에 봄학기 시작 전 1 월 인텐시브

과정을 듣고, 여름 이전에 전공과목을 모두 듣는다면 하반기에는 다소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수강신청 과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수에 대한 평가, 강의의 수준 등에 대해서는 KDI 선배나 현지에 유학온 다른 기관 학생들과 상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덴버에 지원하기 전에 캡스톤에 대한 걱정이 있어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미리 캡스톤 주제를 정하고, 캡스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간단면 비교적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스톤 작성이 주로 Quantitative Method 를 사용하여 진행되므로 KDI 에서 통계 관련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주로 덴버보다는 RTD(경전철)로 이동이 가능한 Centennial, Highland Ranch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1년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APT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아파트는 2~3층으로 된 목조건물로 외관상 한국의 아파트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운동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인근에 별도의 Recreation Center가 있어 이용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단독주택(타운하우스)에 거주할 경우 미국 아파트의 문제점인 층간 소음을 피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임대료가 아파트보다 비싸고 경전철에서 걸어서 다니기에는 불편하기에 차량을 2대 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전철 역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등록금에 포함된 무료 RTD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통학할 수 있기에 RTD 역 근처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아파트에 KDI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덴버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방2, 욕실2개의 경우 월 1,800~1,900달러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덴버에는 지역마다 도서관이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코엘벨 이라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시설이 매우 좋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이 곳에서 주로 공부를 했으며, 도서관 내에 카페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어서 학교수업 및 과제 준비는 물론 KDI 학생들끼리 공동으로 이야기하면서 과제를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별로 40권이상 책을 빌릴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영화 CD나 동화책 등도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어, 지역 도서관을 활용하면 아이들 학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리틀톤에 있는 Bemis 도서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강좌를 매우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미국인 자원봉사자와 1:1로 영어 튜터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영어공부는 물론 미국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튜터링 과정은 고등학생부터 은퇴한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미국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어 튜터와 매주 1시간 영어 회화를 하면서 미국인의 생각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같이 쿠퍼스 필드에서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경기도 보러 가고, 과제물에 대한 문법적 오류도 바로 잡아주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버에는 많은 한인교회가 있고, 한인 성당도 1군데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나 성당에 다니면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생활을 보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당에 다니면서 구역 모임에 참여를 하였고, 매달 1번씩 교민들의 집에서 가정 미사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6. GMP 2 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덴버에서의 생활은 학업을 통한 지식 습득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얼마나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학습 준비와 참여를 권해드리며, 덴버 지역은 여러가지 생활 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여행, 스포츠, 문화시설 향유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 생활에 대한 정보

F 비자로 다녀왔으며, 비자로 인한 문제는 생활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다만, 캐나다, 멕시코 등 관광 등의 목적으로 여름방학 중 미국 외로 나갈 경우 학교에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계획이 있다면 미국에서 인근 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하여 International 학생을 관리하는 교수님의 Sign 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생활과 관련해서는 입국 후 바로 필요한 것이 자동차인데, 주로 KDI 전임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동차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현지 딜러로부터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1 년 후에는 자동차를 되팔고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 시에도 서류를 갖추어 이력관리를 잘 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비용이 매우 비싸므로 현지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센터를 이용한다면 여러가지로 저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인 가게들 소개하는 책자가 발행되고 오로라 지역에 있는 한인슈퍼 H-Mart 입구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생활 중에 봄방학, 여름방학, 가을방학, 그리고 논문 마치고 귀국 전 며칠 등 가족들과 여행을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해외에서 호텔, 식당, 항공권 등을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를 발급받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논문은 어떻게 쓰고 수업은 잘 따라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KDI 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면 UC Denver 대학원

과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미리 걱정보다는 차분하게 가족들과 미국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가지로 바쁜 생활을 하느라 가족들끼리 서로를 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가족들과 해외에서 1년간 거주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함께 해외생활을 준비하고 여러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